



“4주 진단은 나와야 부상 정신력·체력으로 버텨라”

KIA 선수들이 일본 미야자키 휴가시 오쿠라가하마구장에서 러닝을 하고 있다. KIA는 ‘체력’을 이번 캠프의 주요 목표로 삼고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여울 기자 KIA 미야자키 캠프를 가다

김 감독 “버틸 수 있는 부상 현명한 대처” 주문

KIA는 해마다 크고 작은 부상에 신음하면서 ‘부상병동’으로 통했다. 여기에 선수층까지 얇아 유독 부상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곤 했다. 부상에 대처하는 김기태 감독의 자세는 ‘현명하게 버텨라’이다. 얼마 전 캠프 부상 자들에 대해 얘기를 하던 김 감독이 “요즘 의술이 많이 좋아졌네. 하루면 다 되네”라며 호탕하게 웃었다. 내용인즉 “발목이 좋지 않아서 며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선수가 있었는데, 바로 다음날 “다 나왔다”면서 훈련을 하겠다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김 감독은 “크게 찢어져서 30

바늘 이상 봉합, 골절 등으로 4주 이상 진단이 나올 경우가 부상이다”고 부상에 대한 경고를 내렸다. 물론 농담이 더해진 얘기가지만 그만큼 선수들의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충분히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부상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게 김 감독의 의중이다. 여기에 ‘기회’가 눈 앞에 보이면서 젊은 선수들은 마지막 정신력까지 짜내 고된 캠프를 버텨내고 있다. 작은 부상들은 있었지만 이번 캠프에 이탈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내야수 황수현은 지난 22일 두산과의 연습 경기에서 1루 수비 도중 상대의 강한 타

구에 정강이 부위를 맞는 부상을 당했다. 다리에 맞은 공이 강하게 2루 쪽으로 튕겨 나갔지만 황수현은 포구를 하기 위해 1루로 돌아가 아웃카운트를 채운 뒤 트레이너에 업혀 나왔다. 23일 훈련을 쉬어가게 된 황수현은 “하루 쉬면 괜찮아질 것이다”며 오히려 아쉬워했다. 경기 도중 타구에 맞고도 아픈 내색 하지 않고 뛰어나가는 선수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그렇다고 해서 김 감독이 무조건 버티고 참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현명한 자기관리를 바라고 있다. “감독님께서 몸이 좋지 않아서 쉬고 싶다고 하면 알아서 하라고 하신다. 대신 내일 더 그만큼 잘라라고 하신다”는 것이 선수들의 설명이다. 스스로 알아서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고 보여주라는 것이다. 또 상황에 따른 스케줄 조절로 적절하게 선수들의 체력을 배분해주고 있다. 지난 23일 훈련 스케줄을 선수들이 직접 짜도록 했던 김 감독은 예정에 없던 ‘휴식’

을 스케줄에 넣었다. 이날 오전 고강도 수비훈련을 진행한 김 감독은 “오후 훈련은 휴식이다”고 선언했고, 선수단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얼굴에 웃음꽃들이 가득 피었지만 선수들이 무조건 쉬는 것은 아니다. “훈련을 하고 가겠다”는 몇몇 선수들을 코칭스태프가 설득(?)해 속소로 돌려보냈고, 예정됐던 스케줄대로 속소까지 도보로 이동한 선수들도 많았다. 포수 오두철은 나홀로 송구 연습을 하다가 감독의 핀잔을 듣기도 했다. 무엇보다 체력이 부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캠프에서는 체력 훈련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뛰는 것은 이곳의 일상이 되었다. 체력과 정신력을 채워가면서 점점 강해지고 있는 선수들이 ‘부상병동’ 팀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wool@kwangju.co.kr



내가... 그 정도 밖에 안돼?

미네소타 포스팅 금액 예상치 밀돌아 KIA 양현종, 해외진출 고민 깊어져

KIA 에이스 양현종의 미국 진출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미국 진출을 추진했던 양현종과 KIA가 낮은 포스팅 응찰액을 고민에 빠졌다. KIA와 양현종은 지난 22일 오전 미국 구단들이 써낸 최고응찰액을 통보받았다. 미네소타 트윈스가 제시한 금액은 앞서 포스팅을 신청했던 김광현의 2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나오면서 양팀 모두 곤란한 입장에 놓였다. 22일 유선상으로 금액에 대해 얘기를 나눴던 KIA와 양현종은 23일 직접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일단 양측은 “쉽지 않은 고민이다. 더 생각해보자”는 쪽으로 1차 만남을 마무리했다. 이 자리에서 양현종은 “해외진출을 추진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했지만 예상치 못한 금액이 나오면서 차분하게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해볼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KIA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KIA는 앞선 2011년 윤석민의 포스팅

을 막으면서 선수와 구단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양현종의 해외 진출 입장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구단이 기대했던 수준과는 거리가 먼 응찰액에 나오면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지지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KIA는 “구단입장에서는 단순히 금액적인 부분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팀뿐만 아니라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투수 중에 한 명인데 앞으로의 해외진출 사례 등을 생각해서라도 자존심을 생각해야 할 것 같다. 또 많은 금액을 받지 못하고 미국 진출을 할 경우 기회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아직 생각할 시간이 있는 만큼 차분하게 고민해보자고 얘기를 나눴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야구위원회가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최고 응찰액 수용 여부를 전달해야 하는 시한은 오는 28일 오전 7시다. /김여울기자 wool@



23일 '제10회 함평 다이내스티CC 회원 친선 골프대회 및 클럽챔피언 대회'에 참가한 회원들이 라운딩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함평 다이내스티CC 제공>

함평 다이내스티CC 제9대 챔피언에 정고훈씨

개장 10주년 맞아 친선대회도

호남의 대표적 골프클럽인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 제9대 챔피언에 정고훈(52·효정형외과 원장·사진) 회원이 등극했다. 정 회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챔피언 자리를 지켰다. ‘사계절 양산디 골프장’ 함평 다이내스티CC가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한 제9대 클럽챔피언 선발대회에서 정 회원은 3라운드 합계 234타(83-78-73), 평균 78타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는 지난 해보다 3타 줄인 기록이다. 준우승은 합계 236타 (80-71-85), 평균 78.6타를 기록한 박철성(47·광주희망병원 내과원장) 회원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함평 다이내스티CC 개장 10주년을 맞아 진행됐으며, 제10회 회원

친선 골프대회도 함께 개최됐다. 회원 친선 골프대회는 23일 18홀 2개 코스에서 신페리오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됐으며, 회원 150여명이 참가해 평소 같고 닦은 기량을 겨뤘다. 임페리얼 코스에서는 68.8타를 기록한 오태교(55·건강스타로폴 대표) 회원이, 펠리스 코스에서는 69.4타를 기록한 장운식(48·청정동물약품 대표) 회원이 각각 우승했다. 최복규(58) 회원은 69타로 통합코스 메달리스트에 올랐다. 롱기스트는 289m를 날린 김용남(54) 회

원이, 니어리스트에는 핀에 30cm를 붙인 이태송(53·해바라기지와 원장) 회원이 이름을 올렸다. 참가 회원에게는 클럽로고 모자와 선물세트가 증정됐으며, 대회를 마친 뒤 만찬을 열어 회원간 친목을 다졌다. 한편, 함평 다이내스티CC는 세계적 명성의 로널드 프리(Ronald Fream)이 코스를 설계한 자연친화적 골프장이며, 전면 양산디로 시공돼 세계질 라운드가 가능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